사탄도 빛을 발하고 있다

(고후11:1~15)

1.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2.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3.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4.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5.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13.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14.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사탄도 빛을 발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사탄도 빛을 발하고 있다”
고린도교회에 유대 땅으로부터 잠입해 들어와서 사도바울의 사도권에 회의를 품도록 유혹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바울의 마음가짐과 언사가 매우 강경해집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부분처럼 거짓사도다, 속이는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의 일꾼들이다, 이게 지금 전부 다 한 족속 한 부류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 아니겠어요?

도대체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후서를 보내고 나면 분명히 고린도교회에 있는 유대 땅으로부터 온 그 선지자라는 사람들도 읽을 것입니다, 그들이 읽을 것임이 분명한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탄의 일꾼들로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는 사탄의 아류로 아예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아참 이거 보통 문제가 시끄러워지지 않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 눈에 띠는 표현이 있어요.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 말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봅니다.
광명의 천사로 사탄이 가장을 하려면, 어쨌든 빛을 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탄이 우리들 앞에 나타날 때 빛을 발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베드로의 말대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닐 때, 호랑이나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을 뒤집어쓰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탄에게서 발휘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빛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빛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예를 들면, '아, 드디어 그의 실력이 빛을 발한다, 그 실력을 사람들이 몰라보다가 이제 드디어 세상에서 빛을 보게 되었네!' 이렇게 사용합니다.
또, '쥐구멍에도 볕 들 날 있다' 볕이라는 말은 밝은 빛 플러스 따뜻한 열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마는 어쨌든 빛이라는 의미를 알 수 있게 하는 속담입니다.
쥐구멍이란 어둡고 추운 곳 아닙니까? 그 어둡고 추운 쥐구멍에도 밝고 따뜻한 타이밍이 주어질 때가 온다는 얘깁니다.
또, 밤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등대의 빛을 발견합니다, 이때 '한 가닥 빛을 발견했다'에서의 빛에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희망입니다, 구원의 가능성입니다.
이런 의미로 빛이라는 단어가 쓰여 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광명의 빛이라고 하는 말 역시도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지만 과연 그 빛이라는 것이 진짜 시간과 공간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뵐 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사탄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 삼키려고 할 때 발휘하는 빛은 어떤 빛일까요?
빛이 어둠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이렇게 돈을 철저하게 좋아하는데, 돈을 좋아한다는 것은 돈만이 내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만족의 대상이 된다고 믿고 돈만이 기쁨의 근거가 되고 안정에 근거가 된다고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방을 돌아봐도 돈이 나올 구멍이 없어요.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이 깜깜하다고 표현합니다.
어두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또, 사업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는데, 사업이 앞뒤가 꽉 막힐 때 깜깜하다고 표현합니다.
자식을 무척 좋아해서 인생을 자식에게 거는데, 자식의 문제가 동서남북이 막혀버릴 때 앞이 깜깜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깜깜함에 따라서 빛의 내용이 결정되는 거지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소원이 막혀버리거나 할 때 우리가 깜깜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우리에게 빛을 가장하고 나타납니다.
이때 사탄이 발휘하는 빛은 어떤 빛이냐 하면, '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네가 좋아하는 돈, 그런데 나올 구멍이 없어서 깜깜하다고 느끼고 있잖아? 돈 벌 수 있어, 예수 잘 믿으면 돼!'
이게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식 문제로 고민하는데, 빛을 발하면서 광명의 천사로 사탄이 옵니다,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자식의 문제가 예수 잘 믿으면 해결될 수 있어, 교회에 충성 봉사하면 다 해결될 수 있어,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다 잘된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앞선 원칙이 있는데, 그게 교회에 충성 봉사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잘될 수 있어, 네가 좋아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될 수 있어!' 하고 빛을 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카타콤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와 비교해 봅니다.
카타콤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이 200년 넘는 세월동안을 그곳에서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종류의 빛을 보면서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가 땅 위로 올라가서 집과 직장과 모든 재산을 되찾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 날이 오겠지! 라고 하는 희망의 빛을 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야말로 깜깜한 카타콤에 들어가서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도 깜깜하고, 이 세상적으로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 이 세상의 상황이 개선될 것을 바라는 희망의 빛을 붙잡고 버텨낸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빛을 보면서 카타콤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빛과 하나님나라의 빛의 차이는 뭐냐 하면, 사탄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빛은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우리 정면에서 비추는 것처럼 이 지구의 평면상에 머무는 빛입니다.
지구의 평면 위에 있으면서 시간적인 미래로부터 주어진다고 얘기해주는 희망의 빛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에게 있어서의 진짜 빛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이 지구 평면 위에서 앞쪽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는 빛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빛이 비추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쏘는 빛은 언제나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내 앞에서 지구의 평면 위에서 비추면서 이 지구의 앞날에 언젠가 잘될 날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광명의 천사들이 전하는 희망의 빛은 언제나 지금 여기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때문에 깜깜함을 느끼고 돈 때문에 깜깜함을 느끼고 가정의 문제 때문에 깜깜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광명의 천사인 일꾼들은 어떻게 희망을 전하느냐 하면, '너는 지금 깜깜함을 느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지금 그 상태 이 세상의 현실 그대로 놔두고라도 얼마든지 너는 구원의 세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기쁨의 빛을 받을 수가 있고, 만족과 행복의 빛을 쐴 수가 있다, 위로부터 그 빛이 주어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의 깜깜하게 느꼈던 그 현실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돌파구가 생기거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즉,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떼게 하는 것이지 그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게 아닌 것이에요.

문제는 이 사탄이 가져다주는 빛을 일단 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아, 나도 돈 많이 벌 수 있어, 나도 건강한 몸으로 잘살 수 있어, 우리 자식들도 잘될 수 있어, 예수님 잘 믿으면!' 이렇게 하늘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카타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아마 요즘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이에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오히려 카타콤이라고 하는 환경 자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죽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희망의 빛을 이야기하는 사탄의 빛이 들어올 틈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늘의 빛이 더 명확하게 보였던 것이죠, 가로등이 없는 시골에 가야 밤하늘의 별이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러면 말입니다, 도대체 이 사도바울은 유대 땅으로부터 잠입해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의심하게 하는 이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경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일까?
왜 사탄과 직접 연결을 해버리고 마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들도 어쨌거나 앞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다른 예수를 전한다는 말에 비추어볼 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도 천지에 가득한 그런 세상에서 그래도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이니까 훨씬 더 나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식사라도 한 끼 거하게 차려놓고 함께 하면서 화해의 길을 모색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너무 심각하고 너무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닐까요?
아예 사탄과 한통속으로 봐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그 거짓선지자들에게 미혹된 교인들은 돌아올 수 있지만, 거짓선지자라고 규정된 이 사람들은 아예 돌아올 여지를 남겨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 목회에서는 아주 심각한 거예요.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며 교만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사람이 좀 여유가 있어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포용하고, 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좀 포용할 수 있어야지, 일단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을 딱 사탄과 한통속으로 몰아붙여버리면 교회의 분열이 어쩔 수 없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바울은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도대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역사할 때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깊이 광명의 천사라는 이야기를 함께 생각하면서 사탄이 어떤 모습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강단에 서서 예수 잘 믿으면 이 세상의 일이 잘된다고 하는 희망의 빛을 쏴대면서 교인들의 마음을 이 세상에 묶어두는 자들이 바로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들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왜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짓을 하는지를 알면 이 사탄의 빛을 구분해내는 기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왜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교회에 들어올까요, 뭘 목적하고?
사탄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인격의 질도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돈만 좋아한다, 그 인격의 어떠함이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좋아한다, 그 인격의 어떠함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도 좋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라서.

특별히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사탄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사탄을 경배하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사탄은 드러내놓고 자기 자신을 경배하라고 할 만큼 미련하지도 않고, 실지로 우리 인간들이 자기를 경배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간들 자체를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무시하고 우리 인간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사탄을 경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치 전혀 마음에 안 드는 대머리 노총각이 졸졸 따라오면서 구애를 할 때 귀찮게 여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대머리 노총각이 완전히 admire 합니다, 그런데 경배하는 마음으로 다가와도 좋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에요, 인간의 경배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지으실 때 옆에 계신 독생자를 보시면서 이 독생자를 희생할 때가 되면 희생시킬 수도 있을 만큼 사랑하고 싶은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부족하고 어리석고 한없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아예 사랑하시려는 대상으로 처음부터 만들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귀중한 대상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무지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의 목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라이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격도 능력도 지혜도 미달입니다.
하나님에 필적하는 또 다른 악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다른 악한 영적인 라이벌적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도 보잘 것 없고 하찮은 존재들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을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낸 겁니다.
인간들로 하여금 마음으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등지게 만들 수 있을까 살펴봤더니, 언제나 이 세상에서 좋다는 것들과 하나님을 앞에 두고 기로에 서있는 것이 인간의 신분이고 지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진작 이러한 인간의 위치를 포착한 사탄이, 또 이러한 위치가 인간의 신분을 나타내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 선악과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에덴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선악과가 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다른 좋은 것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산다는 이야기를 뜻하는 거예요.
이 점을 포착해갖고 와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는 지금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므로 무조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제일 좋은 분이라고만 생각하고 살고 있다, 근데 이게 속임수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마음을 당신에게만 오게 하려는 속임수이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 그동안 보지 못하고 있었던 기가 막히게 좋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게 바로 선악을 분별하게 됐다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좋은 것들이 세상에 널려있거든? 돈도 권력도 명예도 가족이라는 것도 있고, 모든 것이 아무리 못해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다!'
그래서 마음을 이쪽으로 결정짓게 해버렸어요.
그렇게 아담 이후로는 계속 모든 자연인은 하나님과 세상에서 좋은 것들이라고 여겨지는 그 가치들을 앞에 두고 기로에서 자동적으로 세상 쪽으로 흘러가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등지게 만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께서 십자가사건을 일으키셨어요.
이 십자가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하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자동적으로 끌려가는 상태에서, '아, 이건 죄 때문에 끌려가는 거지, 진짜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세상에서 좋다는 것들에 대해 죽음으로써 마음의 철로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뀌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의 전철기인 십자가를 마음에 달고 있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이 교회 안으로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금 옛날에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들을 향해 가던 그 자연인의 상태로 돌이켜 버립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님 믿어라, 누가 믿지 말라고 했느냐?' 사탄의 말이에요, '하나님 잘 믿어야지, 하나님 경배해야지, 잘 믿어야 좋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좋아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많이많이 주실 거야!'
결국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내는 것 같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 보냅니다, 수양버들가지처럼.
수양버들가지를 보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수양버들가지의 모든 끝이 다 땅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하나님 믿어라, 좋다! 예수님 믿어라, 좋다! 교회 봉사해라 좋다!' 다 좋다고 했는데 마음의

마지막 지점을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면 이 세상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마음으로 등지게끔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광명의 천사로 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탄은 절대로 자기를 경배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찮기 때문에, 우리를 멸시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기 위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이 세상의 일이 잘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그게 가장 잘되는 것인데, 세상의 기준대로 돈 많이 버는 게 잘되는 거고, 높아지는 게 잘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세상의 빛을 희망으로 바꿔 쏴대면서 사탄이 우리에게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소위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라는 명분 아래,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을 거라는 식의 설교를 하고 계신다면, 그냥 권사님이 옆집 아줌마에게 그렇게 전도한다면 그 권사님은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고린도교인들이 돌이킬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처럼, 목사님이 그러고 있다면 이것은 사탄과 한통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볼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목사님 중에서도 그런 사탄과 한통속이, 다른 선배 목사님께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돌이키실 수 있는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탄도 빛을 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사탄이 발하는 빛에 노출되어서 정작 마음의 시선이 포착해야 되는 하늘의 빛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환경적으로 깜깜합니까?
미래에 희망을 두게 하지 마시고, 수직으로 위에 희망을 둠으로 지금 여기서 하늘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부활하여 승천하신 주님을 나의 소유로 확인하는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